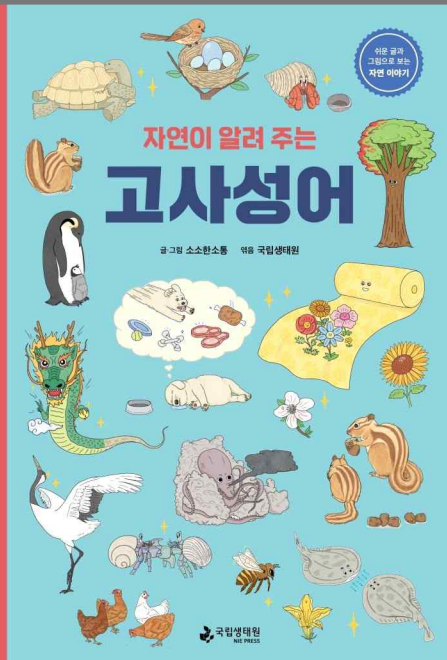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자연이 알려주는 고사성어

국립생태원 엮음

본문 132쪽

판형 182×257mm / 무선

2025년 12월 12일 출간 / 초등 저학년 이상

ISBN 979-11-6698-727-4(14400) / 979-11-90518-20-8(세트)

쉬운 글·그림: 소소한소통

검색 키워드: 고사성어, 쉬운 글, 읽기 쉬운 도서, 생태 학습
도서, 고사성어 활동지, 특수교육 자료, 생태, 자연,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시리즈 여덟 번째 도서, 「자연이 알려주는 고사성어」 발간

고사성어 × 자연생태 × 활동지.

아이의 이해를 돕는 새로운 융합 학습서!

고사성어는 짧은 표현 안에 깊은 뜻을 담고 있지만,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아이가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고사성어를 실생활과 연결해
설명하며, 자연 생태 이야기와 함께 구성했습니다.

그림으로 내용을 먼저 보고, 짧은 이야기로 의미를 익히며, 활동지를
통해 직접 표현하는 참여형 고사성어 입문서입니다.

발달장애 아동, 초등 저학년, 문해력이 약한 아이까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고사성어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1. 국립생태원이 쉬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쉬운 글과 그림으로 보는 자연 이야기’ 시리즈는 국립생태원이 출간한 다양한 도서들이 가지고 있는 생태정보와 가치들을 쉬운 말과 그림으로 풀어 발달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노인, 청각장애인 등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자연이 알려주는 고사성어’ 기획 의도

이 책은 2020년 국립생태원이 출간한 <생태돋보기로 다시 읽는 고사성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사성어와 자연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과 그림으로 재구성한 읽기 쉬운 버전입니다. 고사성어 속에 담긴 생태적 의미와 이야기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단순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다시 쓰고, 직관적인 그림으로 고사성어의 뜻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 읽고 → 이해하고 → 표현하는’ 순서로 흐름을 구성하여, 고사성어가 단순 암기가 아닌 생각하고 연결해 보는 학습 경험이 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3. 도서 특징점

이 책은 고사성어를 자연 생태와 연결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서입니다. 큰 글씨와 단순한 문장, 직관적인 그림을 사용해 발달장애 아동과 초등 저학년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야기→생태 정보→활동지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한 권으로 개념 이해부터 표현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제작 시 발달장애인 참여를 통해 문장 난이도와 이해도를 세심하게 조정하여 누구나 읽기 쉬운 형태로, 가정·학교·특수교육기관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초등·발달장애 아동 맞춤형 학습 도서입니다.

4. 지은이 소개

역임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교육, 전시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국립생태원은 사람이 머무는 모든 곳이 자연을 배우는 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생태 정보와 이야기들을 다양한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글·그림 소소한소통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게’ 만들어 가는 사회적기업.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까지 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삶을 꿈꿉니다.